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8호 [무게 제25076호] 주체104(2015)년 10월 25일 (일요일)

전 당, 전 군, 전 민 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04호

주체104(2015)년 10월 24일 평양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지휘성원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백두산대국의 혁명적대장으로 성대히 경축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대로를 승리와 영광의 길로 수놓아가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이며 사상의 위력,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으로 력사의 온갖 도전과 원수들의 발악적인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이 땅우에 강성변영하는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국을 온 세계가 보란듯이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드립없는 의지이다.

당의 사상과 위업을 면 앞장에서 받들고 당을 결사옹위하며 전체 군대와 인민을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과감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것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나팔수들이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기본사명이고 본분이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친히 조직하여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어 위력하고 판독있는 합창단으로 강화발전된 공훈국가합창단은 가장 간고하고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방사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은 위력한 노래포성으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였으며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조국결사수호전, 강성국가건설대전에 총열기시키는데서 특출한 공훈을 세웠다.

당의 문예정책관철의 척후대, 우리 당 사상문화전선의 제일기수인 모란봉악단은 당의 목소리로 시대와 사회발전을 선도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총지휘 예술집단으로서 주체100년대의 역사적진군길에 자기의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부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비약으로 산악같이 불려일으켰으며 온 사회에 혁신과 전진의 기상이 맥박치도록 하는데서 특출한 공훈을 세웠다.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음악예술사상으로 본분히 무장하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창조기풍으로 당과 혁명이 요구하고 인민이 지향하는 시대의 송가, 최후승리의 전군가들을 수많은 창작형상하여 군대와 인민을 최후승리를 위한 총열사건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고있다.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합동공연을 최상최고의 수준에서 진행함으로써 주체예술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였으며 뜻깊은 10월의 하늘가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였다.

나는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전체 지휘성원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 당의 주체적문예정책을 높이 받들고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만을 걸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형상해내리라는것을 굳게 믿으면서 군사칭호를 다음과 같이 올려줄것을 명명한다.

△ 륜군중장

장봉식

△ 륜군대장

설태성 박성남 리일찬 박용삼 리창진 정춘희

△ 륜군상좌

정문성	남하일	전순철	함 혁	류현호	로순남	오 영	김덕화	강 영	김형진	리창진
원기철	박재국	럼명일	한정섭	김석근	송태섭	리명진	강명선	오정현	백근식	심명진
김종만	김용덕	홍서표	김명남	박창식	안민도	김명결	장명산	김비룡	김봉용	명만식
김문광	신기남	정기봉	리일훈	류명호	송 옥	강성림	조태영	김경철	한경일	김광성
황위남	김경일	김철준	박현우	리철수	황은미	현경일				리창명
박원일	채철민	리 용	김성희							

△ 륜군중좌

최광남	황은성	김성진	원남철	김성민	문건일	최금철	한철수	김순철	조봉준	박송철
리충일	한은정	정영복	리철우	현민철	장일명	김성혁	김형일	박수재	한별이	김장훈
리 범	김윤민	리철민	김철진	한창민	김주성	김 철	김영호	김영범	유원철	리경진
김 혁	서인영	김경철	림 별	김광혁	박은혁	김충일	송순철	박찬명	리명남	

△ 륜군소좌

조광철	김은일	리청송	김영호	김명진	리철호	고철호	최명일	윤봉철	한경호	원성일
박현철	한성국	김명일	조혁민	리충일	리성남	함경진	송광용	주 현	백광명	김유철
리진혁	전성일	김철민	오성광	리철란	김진혁	황민호	김성준	유예성	전철경	김성룡
림금성										

△ 륜군대위

김원국	럼영복	강경훈	최성일	김철준	최명찬	림홍식	정명남	김항순	리해정	리정희
리희경	김유경									

△ 륜군상위

장충심	박순일	김원명	김명진	송금성	오명철	김충국	정성진	김류성	리홍성	김광명
윤철준	리은경	김 철	허광진	로효정	최정훈	신 렬	강현우	김송희	김철금	홍광민
리금혁	장배산	황주성	고유성	리익철	손호신	리영오	김철민	김경운	안철운	류영호
오성진	신금성	정진혁	양주혁	박경일	한진혁	마현일	김진아	허주성		

△ 륜군중위

최광혁	럼광혁	리명학	홍경진	리원금	최수영	차설송	리성재	김지현	정지성	정은경
한은별	김세웅	심소연	김태룡	전혜련	유은정	최정임	홍수경	조경희	김정미	한순정
김은하	류진아	박미경	리수경	박선향	김효심	조국향	오수연			

△ 륜군소위

김진우	최진혁	임지성	지 성	림수혁	허태혁	방위성	최금성	김태룡	곽요진	문일심
홍충혁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정 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절세위인들을 높이 우러러모시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절세위인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고 평양블록공장 부지배인 김성철은 절세위인들의 태양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온갖 성의를 다하였으며 20년동안 특류영예군인과 그의 가정을 친철육의 심정으로 돌보아주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였다.

만경대구역 만경대상점 로동자 리성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모자이크화들을 모시는 사업에 충정을 바치셨으며 세로 지구 축산기전설장과 탄광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잘하고 전쟁로병의 생활에도 따뜻한 정을 기울여주었다.

백두산천출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대동강구역 종합식당 로동자 손혜영과 용진군 을 203인민반 조영남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리는 사업에 순결한 맘을 바치셨으며 중요대상건설에도 불심함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만경대구역 종합식당 로동자 김봉애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대건설장에서 혁명군대의 위력을 떨쳐가는 군인들을 수심치않아 원호한것을 비롯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내고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있는 평양철도국 자체상사 사장 김동익은 뜨거운 동지에, 인간애를 지니고 10여년간 영예군인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도록 그의 건강과 생활을 극진히 돌봐주어 집단의 존경을 받고있다.

수도건설위원회 갈림길기동련단 팀원남은 오랜 기간 특류영예군인을 위해 사심없는 진정을 바쳤으며 최근에는 그를 자기 가정에서 데려다 한집안식솔로 따듯이 보살펴 줌으로써 사회주의대가정에 미덕의 향기를

더해주고있다.

지난 기간 중요대상건설지원사업을 잘하여온 국토환경보호성 산하단위 부원 정시원은 귀중한 정춘시절을 조국에 바친 영예군인이 영원히 마음속의 군복을 벗지 않고 돌보아준 삶을 이어가도록 성심성의로 도와 주었다.

신의주시 압강동 47인민반 하정옥도 수십년동안 조국보위성에서 위훈을 세운 전쟁로병, 영예군인부부의 생활을 친자식된 심정으로 돌봐주어 대중의 사랑을 받고있다.

북해운성 향만수상운수관리국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은 높은 정밀도와 선진기술을 요구하는 40집합기중기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제작완성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감격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산천출위인들을 친제만세 높이 우러러모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집단을 위한 일에 더욱 헌신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의 력사적 뿌리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라도 제국주의동맹결성 89돐에 즈음하여 매하고, 기념단체가 불태전을 발행하였다.

매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구위원회는 9월 28일 불태전에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으로 조선로동당을 로속하고 세련된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혁명적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당건설 명도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편집하였다.

주체사상연구 기념전국위원회는 13일 불태전에 《조선로동당의 력사적뿌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지금으로부터 89년전 1926년 10월 17일 《E. C》의 결성은 조선인민의 운명과 현대조선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건이었다. 바로 거기에서 조선사회의 항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의 뿌리가 내린것이다. 투철한 반제, 자주, 리념에 기초하고있는 《E. C》의 강령은 조선로동당명령의 기초로, 근본바탕으로 되었다.

《E. C》의 리념인 자주성의 원칙은 조선로동당건설과 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 있다.

《E. C》가 결성된 때로부터 조선혁명은 자주의 기치밑에 전진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였으며 자기 나라, 자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서 놓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풀어나갔다. 조선로동당은 《E. C》가 주창하는 일심단결의 기치를 빛나게 계승해나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

제748호

주체104(2015)년 10월 24일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에 김정일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우리 당사상전선의 제일나팔수인 공훈국가합창단 예술인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창조기풍으로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전군가로 훌륭히 형상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공연무대에 펼쳐놓았다.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에는 주체의 붉은 당기폭에 근로인민대중의 모습을 존엄높이 새겨주고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70년력사가 응축되어있으며 천만산악이 막아하고 준엄한 시련이 닦쳐온데도 일련단심 위대한 어머니당에 영원히 충성대해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내달리는 천만군민을 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한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에 김정일상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

제749호

주체104(2015)년 10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창조기풍으로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70년력사와 당과 혁명,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송가, 최후승리의 전군가들을 새롭고 특색있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당의 붉은 당기폭으로 삼고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 지휘성원, 창작가, 예술인, 성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예술가칭호, 인민배우칭호, 공훈예술가칭호, 공훈배우칭호와 훈장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인민예술가 3명	현은철 장길호 민병철	공훈예술가 1명	리경덕	국기훈장 제1급 7명
인민배우 2명	문일환 리 준	공훈배우 3명	지수원 정광호 김유경	로력훈장 23명
				국기훈장 제2급 6명
				국기훈장 제3급 11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으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간다

백두산 영웅청년 3호 발전소 건설장에서

백두전역의 돌파구를 우리가 열자

황해북도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

영웅청년시대를 창조한 그 기세, 그 기개로 당중앙의 명령을坚决판결하기 위하여 산악같이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 그들의 피눈은 심장과 함께 불도가나마냥 달아오른 3호발전소건설장의 주타격전진에서 황해북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이 서있다.

그들은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지난 10일 연세가배수로타입을 시작한다. 이 불꽃열을 남긴 사이에 천수백㎡에 달하는 콘크리트기초를 성과적으로 끝내는 자랑스런 위훈을 창조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백두의 정갈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단련하고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배짱과 신심을 키운 청년전원들은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계승자들이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떠받치는 억센 기둥들입니다.》

백두산영웅청년 3호발전소를 다음해 청년절까지 끝낼데 대한 당중앙의 명령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황해북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기동하였다. 공사장에 달하는 돌격대원들은 뜻밖의 광경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갑자기 불어날 강물과 하여 가배수로의 기초가 뿔뿔이 찢어졌던 것이다. 게다가 세찬 물결과 높은 수압에 의하여 기초구조의 땅에서 수백개의 물줄기가 사정없이 쏟아지고있었다.

그러나 백두정충들의 심장은

비판을 물었다. 당의 명령이라든 불속이라도 서슴없이 뛰어올라라. 모두가 이런 각오를 단장하고 차디찬 물속으로 주저없이 들어갔다.

려단의 전투장은 삼시에 화산의 분화구로 화하였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진흙으로 기초구조의 안팎의 물기름을 동시에 막기 위하여 분화구로 화하였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진흙으로 기초구조의 안팎의 물기름을 동시에 막기 위하여 분화구로 화하였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진흙으로 기초구조의 안팎의 물기름을 동시에 막기 위하여 분화구로 화하였다.

그러나 백두정충들의 심장은

《저 물기름들을 원수의 화진으로 생각합시다. 지휘관, 당원들 모두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 지휘관, 당원들의 뒤를 따라 청년돌격대원들이 너도나도 가슴을 내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3일간의 전투끝에 수백개의 물기름들이 마르고 기초구조의 물은 점차 줄어들었다.

기초가 드러나자 려단은 지체없이 타이준비를 달라고했다. 려단에서는 타이준비를 달라고했다. 려단에서는 타이준비를 달라고했다.

그러나 백두정충들의 심장은

《저 물기름들을 원수의 화진으로 생각합시다. 지휘관, 당원들 모두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 지휘관, 당원들의 뒤를 따라 청년돌격대원들이 너도나도 가슴을 내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3일간의 전투끝에 수백개의 물기름들이 마르고 기초구조의 물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백두정충들의 심장은

《저 물기름들을 원수의 화진으로 생각합시다. 지휘관, 당원들 모두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 지휘관, 당원들의 뒤를 따라 청년돌격대원들이 너도나도 가슴을 내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3일간의 전투끝에 수백개의 물기름들이 마르고 기초구조의 물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백두정충들의 심장은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 일어나 불붙을 가리지 않고 기어올라 해내고야 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민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연설을 자자구구 배와 살로 새겨두고 이곳 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지난 5일 새로운 전투초소인 3호발전소의 조압수조건설장으로 달려왔다.

정리굴착과 암반굴착, 공사용 물나부생산, 철근가공, 휘토제 각종 조압수조공사를 담당하기 위한 모든 전투장마대서 립체

조압수조공사를 맡은 자강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

당중앙의 명령을 피눈은 심장마디에 조아박은 자강도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조압수조공사에서 편이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불과 10여일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에 수백㎡의 정리굴착과 암반굴착공사를 해체하는 동시에 철근가공과 휘토제작, 문제물반을 내밀어 콘크리트타입을 위한 단단의 준비를 철저히 갖추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 일어나 불붙을 가리지 않고 기어올라 해내고야 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민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연설을 자자구구 배와 살로 새겨두고 이곳 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지난 5일 새로운 전투초소인 3호발전소의 조압수조건설장으로 달려왔다.

정리굴착과 암반굴착, 공사용 물나부생산, 철근가공, 휘토제 각종 조압수조공사를 담당하기 위한 모든 전투장마대서 립체

1대대의 청년돌격대원들도 암반굴착과 운반전투에서 백두정충의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대대의 합미명수로 소문난 광성, 강성, 립철, 김은철 등들이 시간마다 교대를 해가며 들이대는 세찬 함미정에 바위들이 짹 짹 갈라져나갔다. 운반을 맡은 김진향, 오성경, 진수경 등들이 비롯한 청년돌격대원들도 자기의 걸음이 빨라져서 조압수조건설공의 그날이 앞당겨진다는 각오안고 뛰어들었다.

3대대, 4대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이 힘겨운 산길을 뚫으며 공사에 필요한 통나무를 베어내는데, 한때 운반해오던 려단 기술소대의 전투원들은 세계의 만가통을 보장하며 판자와 각제생산품을 들여다왔다.

소대장 최정진 등들이 비롯한 1대대 1소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이 손잡고 피가 나오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근가공전투장에서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나갔다.

당중앙의 명령판결을 위한 백두정충들의 열의를 높이여야 했다. 한시간이 지나서부터는 모든 청년돌격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자. 이런 총성의 일념으로 짧은 시간에 조압수조콘크리트기초준비를 끝낸 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지금 단숨에 기상으로 폭풍쳐 내달린다

1호발전소엔 건설전투에서 기적과 위훈을 떨쳐온 건설장들을 돌볼 수 있게 하겠다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황해북도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낳은 전투적인 일본새

사동구역 일군들의 사업에서

누가 앞채를 매었는가

당정책관철에서의 전격전

어느 단원나 시기적으로 정책과제들이 제기된다.

하다만 매 시기 제기되는 정책과제들을 제때에 빠짐없이 판결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해로 구역당책임일군의 방에서는 구역일군들의 협의회가 있었나. 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일들도 어느 하나 놓쳐서는 안된다.

중요하고 분급된 것은 시가 달라져 내일있을 장전남제천 문헌활동 건설문제였다.

여기서 구역이 맡고있는 건설과 보수대상단도 수립해나 보자.

최단기일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야 하는 방대한 건설과제를 놓고 일부 일군들은 구역이 올해에 계획한 학생소년회관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낳은 전투적인 일본새

사동구역 일군들의 사업에서

누가 앞채를 매었는가

당정책관철에서의 전격전

어느 단원나 시기적으로 정책과제들이 제기된다.

하다만 매 시기 제기되는 정책과제들을 제때에 빠짐없이 판결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해로 구역당책임일군의 방에서는 구역일군들의 협의회가 있었나. 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일들도 어느 하나 놓쳐서는 안된다.

중요하고 분급된 것은 시가 달라져 내일있을 장전남제천 문헌활동 건설문제였다.

여기서 구역이 맡고있는 건설과 보수대상단도 수립해나 보자.

최단기일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야 하는 방대한 건설과제를 놓고 일부 일군들은 구역이 올해에 계획한 학생소년회관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낳은 전투적인 일본새

사동구역 일군들의 사업에서

누가 앞채를 매었는가

당정책관철에서의 전격전

어느 단원나 시기적으로 정책과제들이 제기된다.

하다만 매 시기 제기되는 정책과제들을 제때에 빠짐없이 판결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해로 구역당책임일군의 방에서는 구역일군들의 협의회가 있었나. 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일들도 어느 하나 놓쳐서는 안된다.

중요하고 분급된 것은 시가 달라져 내일있을 장전남제천 문헌활동 건설문제였다.

여기서 구역이 맡고있는 건설과 보수대상단도 수립해나 보자.

최단기일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야 하는 방대한 건설과제를 놓고 일부 일군들은 구역이 올해에 계획한 학생소년회관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낳은 전투적인 일본새

사동구역 일군들의 사업에서

누가 앞채를 매었는가

당정책관철에서의 전격전

어느 단원나 시기적으로 정책과제들이 제기된다.

하다만 매 시기 제기되는 정책과제들을 제때에 빠짐없이 판결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해로 구역당책임일군의 방에서는 구역일군들의 협의회가 있었나. 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일들도 어느 하나 놓쳐서는 안된다.

중요하고 분급된 것은 시가 달라져 내일있을 장전남제천 문헌활동 건설문제였다.

여기서 구역이 맡고있는 건설과 보수대상단도 수립해나 보자.

최단기일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야 하는 방대한 건설과제를 놓고 일부 일군들은 구역이 올해에 계획한 학생소년회관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낳은 전투적인 일본새

사동구역 일군들의 사업에서

누가 앞채를 매었는가

당정책관철에서의 전격전

어느 단원나 시기적으로 정책과제들이 제기된다.

하다만 매 시기 제기되는 정책과제들을 제때에 빠짐없이 판결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해로 구역당책임일군의 방에서는 구역일군들의 협의회가 있었나. 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일들도 어느 하나 놓쳐서는 안된다.

중요하고 분급된 것은 시가 달라져 내일있을 장전남제천 문헌활동 건설문제였다.

여기서 구역이 맡고있는 건설과 보수대상단도 수립해나 보자.

최단기일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야 하는 방대한 건설과제를 놓고 일부 일군들은 구역이 올해에 계획한 학생소년회관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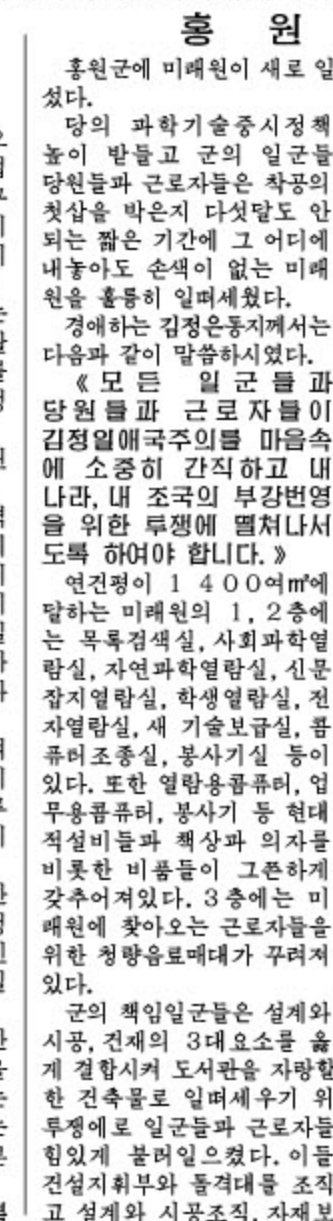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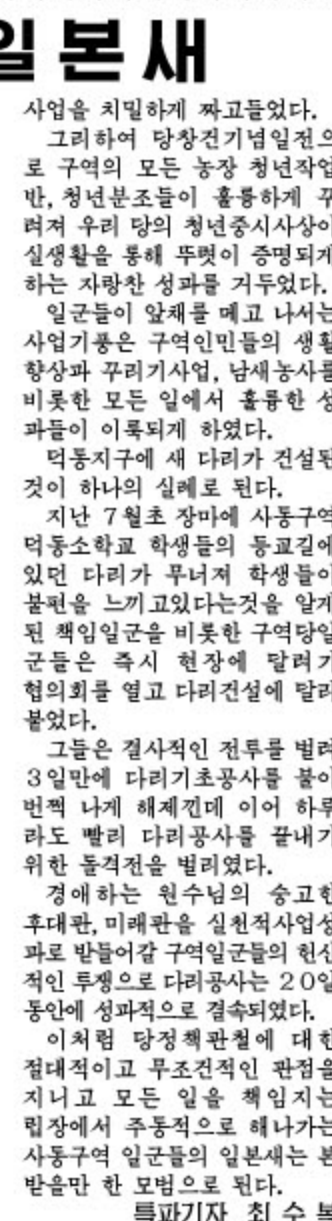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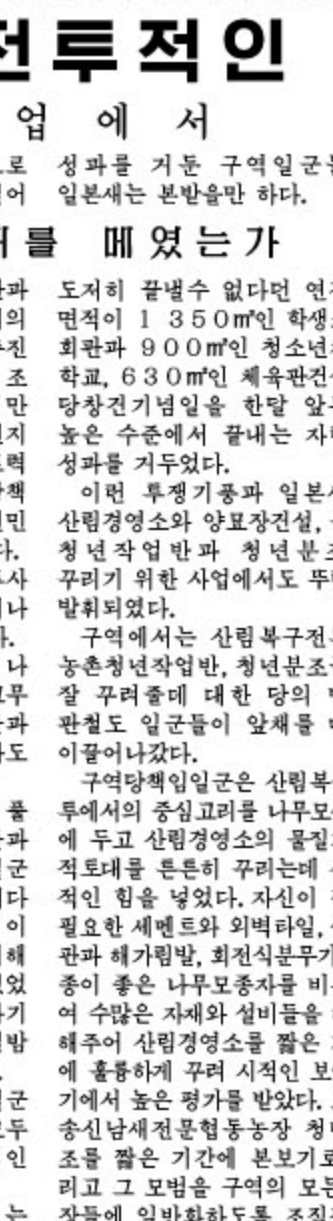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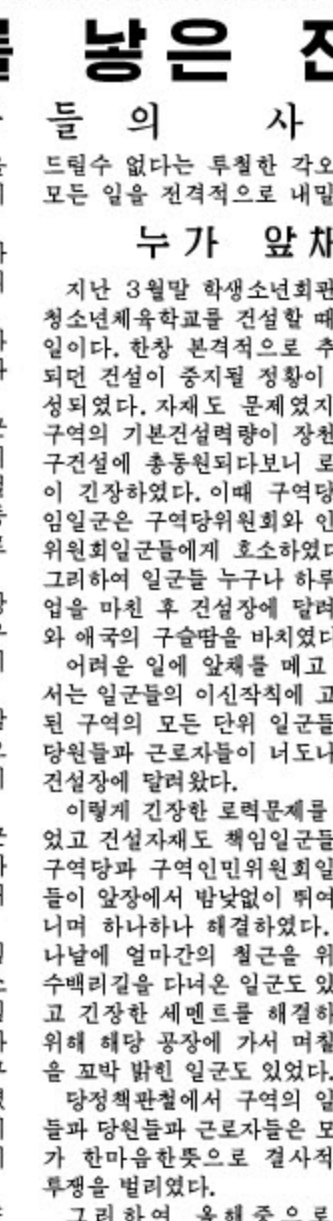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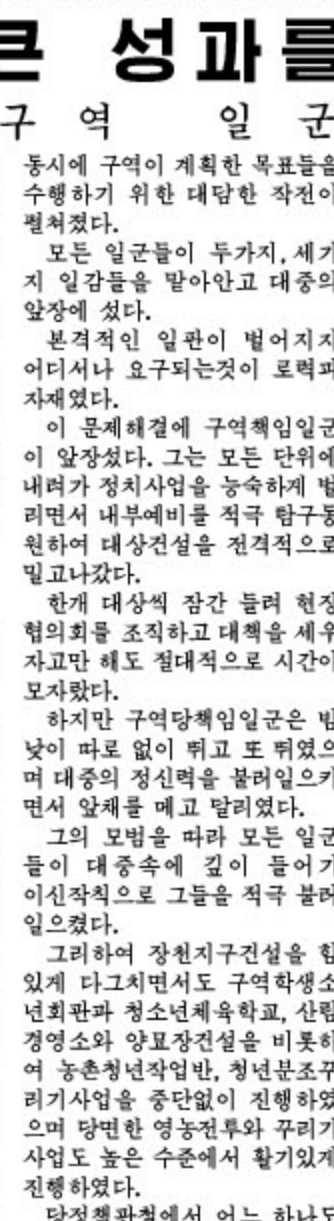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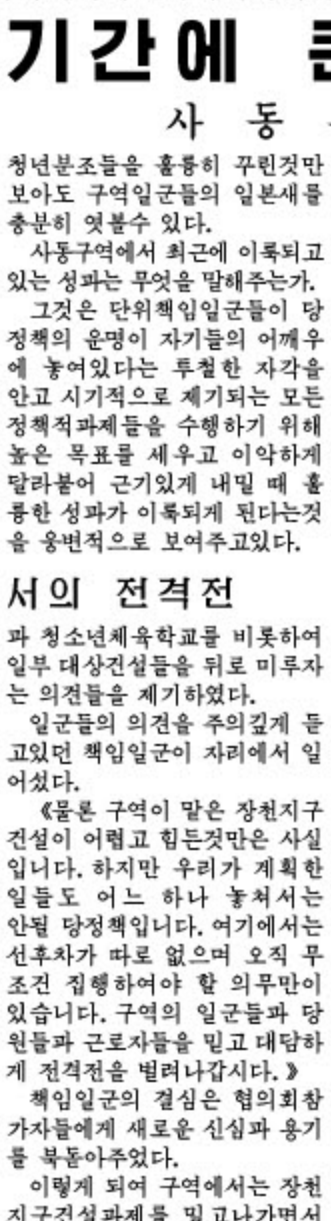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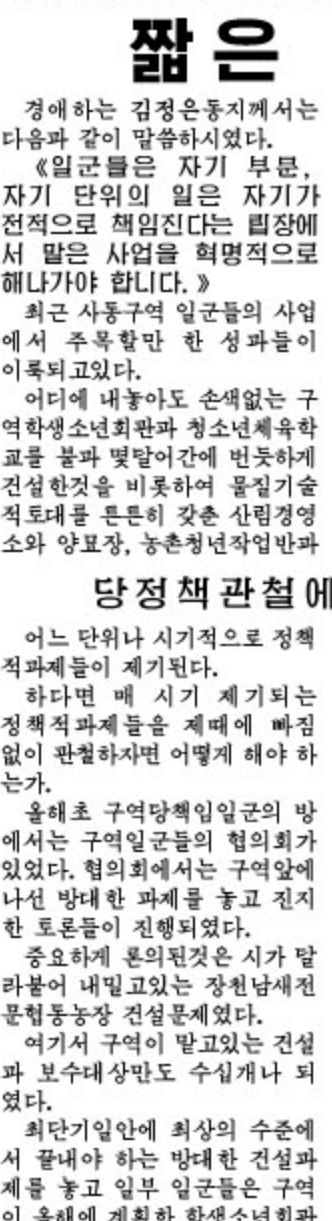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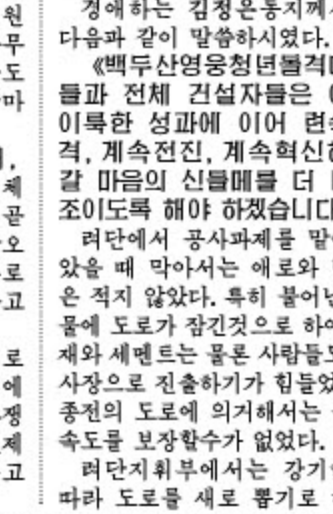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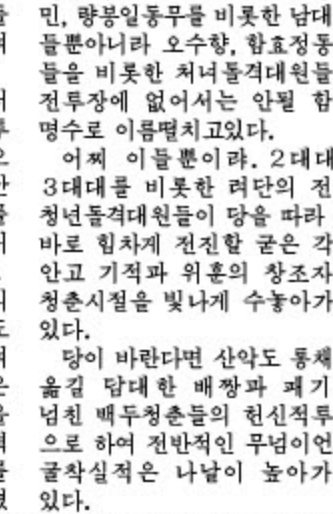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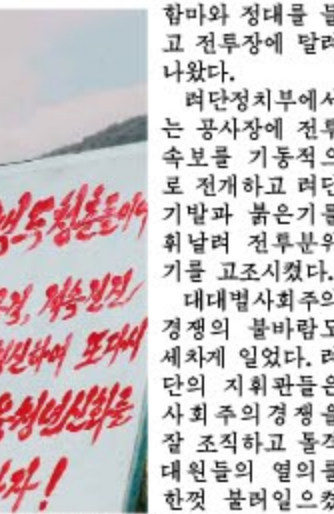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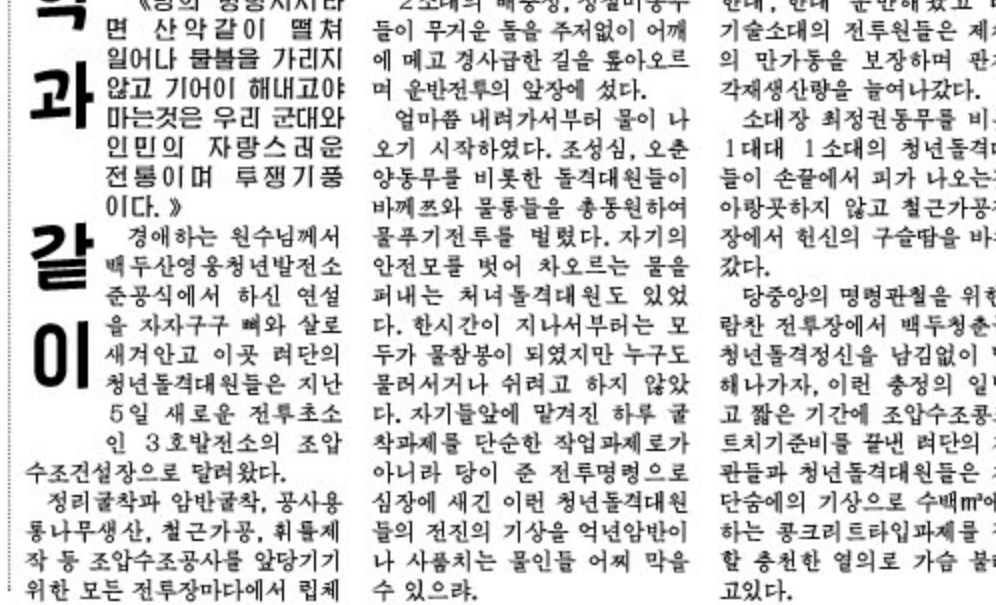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청춘의 용맹과 담력을 안고 황해남도 려단에서



당의 농업정책대로 물질약형농법을 받아들여 장훈을 부른 비결

큰모재배에서 성공한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올해 농사경험을 놓고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이 올해 농사에서 또다시 장훈을 올렸다. 중앙과 지방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예상수확고를 관철하는데 이하면 정보당 1.0이상의 소출이 날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부문에 있어 물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동원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행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어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절대성의 원칙에서

세기의 만능은 전통을 거꾸마련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미곡협동농장에서는 당정책의 신념을 맞은 뜻깊은 올해에 처음으로 큰모재배방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단번에 성공하였다.

중요한 비결이 있다.

지난 1월초 관개부담에서는 서호수의 물이 최저수위에 이르러 모내기철에만 물을 대줄수 있다고 통보해왔다. 이것은 지난 시기의 50%도 안되는 적은 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놓았다.

미곡인 사람들은 올해에는 지금 까지 해오던 전통적인 5월모내기방법이 아니라 6월에 원그루 큰모를 내는 물질약형농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였다. 결과 많은 물만 아니라 종자, 로력, 영농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높은 소출을 내다보게 되었다.

유리한 장군님께서 내세워주신 본보기농장답게 10월의 대수확장에서 자랑찬 로력적성물을 안고 몇몇이 들어선 이 농장의 경험은 주인들과 농업지도기반 일꾼들, 과학자들이 합심하여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해나갈 때 기적적 창조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담하게 결심하자

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말씀의 구절이 그 지의 가름을 파고들었다.

바로 이것이다. 당에서는 물질약형인 동시에 종자, 로력, 영농자재를 절약하면서 정모당 1.0이상 생산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농법을 찾아 받아들일것을 요구 하고있다.

당정책의 진수를 파악한 관리위원장은 최근년간 추후되고있는 신기술농법들을 대비분석하였다. 두면, 세면... 파져볼수록 큰모재배를 선경해야 한다는 답이 나왔다.

현실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천리마의 에지로 밝혀주신대로 물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일것을 요구 하였다.

관리위원장 송유희동우는 단사를 제하고 이 파업부터 집행할 결의를 다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의 정념고상이라고 칭을 담아 불러주신 미곡마을에 물부족으로 흉년이 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거기에 이거리는 물 절약형농법을 도입하여 어버이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선군 1.0 경을 영원히 빛내여나간다.》

농장일꾼들과 작업반조급일꾼들은 로력을 거듭하였다. 강물을 괴력을 채워넣을수 있게 보막이공사를 하고 마른논씨에 물이 들어가는 것으로는 부족하였다.

이런 때 농업정책에서는 전국의 본보기농장 관리위원들의 힘의 힘을 놓았다. 그날 성의 일꾼들은 큰모를 도입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말하였다.

우리 농업부문 일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가운데서 아직까지는 수 손에서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있다. 그것은 화학비료와 종자, 막막을 적게 쓰면서 수 소출을 높이는 영농방법과 두벌농사,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경에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다같이 관철할수 있는 신기술농법이 바로 6월에 모 내기를 하는 큰모재배이다. 때문에 누구든지 큰모재배방법을 대담하게 도입하여 당의 농업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증명함으로써 전국의 농촌들에게 용을 지어주어야 한다. ...

송유희동우가 받은 충격은 컸다. 당의 농업정책을 가장 정당한 것으로 접수하고 발령하는 하나의 지침이 큰모재배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내달리고있다는 사실때문이었다.

그것은 큰모재배는 단순한 농사방법 문제가 아니라 수령의 유언관철정, 당정책용위전이며 당의 권위를 옹호보위하는 중대한 정치적사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정적사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농업정책의 실행에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농장은 바로가치면 생선김을 빼거나 갈 비싼 각오와 열정이 솟구치는 법이다. 관리위원장은 그걸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의 큰모연구집단을 찾아갔다.

사실 그때 농업정책 책임일꾼들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신사에서 접한 후 큰모연구집단의 토의끝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과 당의 요배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큰모재배방법을 도입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이 당의 정치적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고 교육하였다.

그러나 대담을 과학기술적으로 준비시키는 사업은 말로써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일꾼들은 로력사와 함께 문제를 풀 방법론을 두가지로 찾았다.

첫째는 큰모재배와 관련한 과학기술도사들을 더 많이 집필출판하여 더 작업반에까지 공급해주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안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농업성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적극 도와와 나갔다.

로력사와 함께 농업성 국장 주철규, 큰모연구집단의 최원철 박사를 비롯한 일꾼들, 과학자들도 도시과학연구소에 적극 참가 하였다.

당정책의 운명을 함께 책임겠다는 자각을 가지고 모두가 불철주야의 집필열정을 보였다.

그리하여 논바리모재배기술과 관련하여 이미 출판된 도서만이 아니라 3월부터 유기농법과 큰모재배기술, 실용물질약형농법 등 출판된 과학기술도사들이 많이 출판되어 농장까지 보내어지게 되었다.

작업반조급일꾼들, 농장일꾼들은 책들을 손에이겨 줄줄들었다. 큰모를 기르던 원래의 일수가 1~2개정도 더 늘어나고 벼가 줄어지며 더미에서 나온 이삭이 이삭수가 확보되게끔 원래와 어지러 이상당 일수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 결국 많은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완강하게

말보다 몇십배나 더 힘은 것이 실천이다. 그렇다면 미곡협동농장에서 원그루큰모재배방법을 도입하여 기상관념을 깨버린 현실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 것인가.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달린 기적은 남는다는 것이다.

말과 종자, 로력, 영농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다수확을 낼수 있다. 책은 말없는 스승이었다. 모두가 학습을 깊이한 결과 실리가 큰 선진과학기술인 큰모재배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정치·경제적 모순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었다.

평범한 연구사로 생각했던 그가 정서로써 인민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라는 것을 안 참가자들은 정신을 번쩍시키고 강의를 커를 제기하였다. 모든 농경자들이 제 몸뚱이를 바쳐서라도 5월에서 물은 쓰지 않게끔 많은 물을 절약한다. 큰모를 재배하면 앞으로 복비작물을 심을수 있고 또 자연적으로 나는 김을 같이하여 거름으로 리용하므로 살초제를 적게 쓰면서 도 지력을 높인다. 또한 논에서 병해충피해기간이 짧아지고 높은 온도에서 의한 비로습수들이 커져 그만큼 살초제와 화학비료를 적게 리용한다. 때문에 비를지를 개선하고 생태환경오염을 막는다. 큰모재배는 논에서 두벌농사지침이다. ...

결과 그들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큰모재배는 당의 농업정책인 물질약형농법, 유기농법, 두벌농사에 합리적인 영농방법, 큰 모 재배이다. ...

일꾼들은 이처럼 모든 조건을 성숙시킨 후 큰모재배도입문제 를 토의결정하였다.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완강하게

말보다 몇십배나 더 힘은 것이 실천이다. 그렇다면 미곡협동농장에서 원그루큰모재배방법을 도입하여 기상관념을 깨버린 현실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 것인가.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완강하게

말보다 몇십배나 더 힘은 것이 실천이다. 그렇다면 미곡협동농장에서 원그루큰모재배방법을 도입하여 기상관념을 깨버린 현실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 것인가.

말과 종자, 로력, 영농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다수확을 낼수 있다. 책은 말없는 스승이었다. 모두가 학습을 깊이한 결과 실리가 큰 선진과학기술인 큰모재배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정치·경제적 모순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었다.

평범한 연구사로 생각했던 그가 정서로써 인민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라는 것을 안 참가자들은 정신을 번쩍시키고 강의를 커를 제기하였다. 모든 농경자들이 제 몸뚱이를 바쳐서라도 5월에서 물은 쓰지 않게끔 많은 물을 절약한다. 큰모를 재배하면 앞으로 복비작물을 심을수 있고 또 자연적으로 나는 김을 같이하여 거름으로 리용하므로 살초제를 적게 쓰면서 도 지력을 높인다. 또한 논에서 병해충피해기간이 짧아지고 높은 온도에서 의한 비로습수들이 커져 그만큼 살초제와 화학비료를 적게 리용한다. 때문에 비를지를 개선하고 생태환경오염을 막는다. 큰모재배는 논에서 두벌농사지침이다. ...

결과 그들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큰모재배는 당의 농업정책인 물질약형농법, 유기농법, 두벌농사에 합리적인 영농방법, 큰 모 재배이다. ...

일꾼들은 이처럼 모든 조건을 성숙시킨 후 큰모재배도입문제 를 토의결정하였다.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완강하게

말보다 몇십배나 더 힘은 것이 실천이다. 그렇다면 미곡협동농장에서 원그루큰모재배방법을 도입하여 기상관념을 깨버린 현실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 것인가.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완강하게

말보다 몇십배나 더 힘은 것이 실천이다. 그렇다면 미곡협동농장에서 원그루큰모재배방법을 도입하여 기상관념을 깨버린 현실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 것인가.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완강하게

말보다 몇십배나 더 힘은 것이 실천이다. 그렇다면 미곡협동농장에서 원그루큰모재배방법을 도입하여 기상관념을 깨버린 현실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 것인가.

말과 종자, 로력, 영농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다수확을 낼수 있다. 책은 말없는 스승이었다. 모두가 학습을 깊이한 결과 실리가 큰 선진과학기술인 큰모재배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정치·경제적 모순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었다.

평범한 연구사로 생각했던 그가 정서로써 인민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라는 것을 안 참가자들은 정신을 번쩍시키고 강의를 커를 제기하였다. 모든 농경자들이 제 몸뚱이를 바쳐서라도 5월에서 물은 쓰지 않게끔 많은 물을 절약한다. 큰모를 재배하면 앞으로 복비작물을 심을수 있고 또 자연적으로 나는 김을 같이하여 거름으로 리용하므로 살초제를 적게 쓰면서 도 지력을 높인다. 또한 논에서 병해충피해기간이 짧아지고 높은 온도에서 의한 비로습수들이 커져 그만큼 살초제와 화학비료를 적게 리용한다. 때문에 비를지를 개선하고 생태환경오염을 막는다. 큰모재배는 논에서 두벌농사지침이다. ...

결과 그들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큰모재배는 당의 농업정책인 물질약형농법, 유기농법, 두벌농사에 합리적인 영농방법, 큰 모 재배이다. ...

일꾼들은 이처럼 모든 조건을 성숙시킨 후 큰모재배도입문제 를 토의결정하였다.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완강하게

말보다 몇십배나 더 힘은 것이 실천이다. 그렇다면 미곡협동농장에서 원그루큰모재배방법을 도입하여 기상관념을 깨버린 현실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 것인가.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완강하게

말보다 몇십배나 더 힘은 것이 실천이다. 그렇다면 미곡협동농장에서 원그루큰모재배방법을 도입하여 기상관념을 깨버린 현실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 것인가.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완강하게

말보다 몇십배나 더 힘은 것이 실천이다. 그렇다면 미곡협동농장에서 원그루큰모재배방법을 도입하여 기상관념을 깨버린 현실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 것인가.

말과 종자, 로력, 영농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다수확을 낼수 있다. 책은 말없는 스승이었다. 모두가 학습을 깊이한 결과 실리가 큰 선진과학기술인 큰모재배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정치·경제적 모순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었다.

평범한 연구사로 생각했던 그가 정서로써 인민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라는 것을 안 참가자들은 정신을 번쩍시키고 강의를 커를 제기하였다. 모든 농경자들이 제 몸뚱이를 바쳐서라도 5월에서 물은 쓰지 않게끔 많은 물을 절약한다. 큰모를 재배하면 앞으로 복비작물을 심을수 있고 또 자연적으로 나는 김을 같이하여 거름으로 리용하므로 살초제를 적게 쓰면서 도 지력을 높인다. 또한 논에서 병해충피해기간이 짧아지고 높은 온도에서 의한 비로습수들이 커져 그만큼 살초제와 화학비료를 적게 리용한다. 때문에 비를지를 개선하고 생태환경오염을 막는다. 큰모재배는 논에서 두벌농사지침이다. ...

결과 그들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큰모재배는 당의 농업정책인 물질약형농법, 유기농법, 두벌농사에 합리적인 영농방법, 큰 모 재배이다. ...

일꾼들은 이처럼 모든 조건을 성숙시킨 후 큰모재배도입문제 를 토의결정하였다.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완강하게

말보다 몇십배나 더 힘은 것이 실천이다. 그렇다면 미곡협동농장에서 원그루큰모재배방법을 도입하여 기상관념을 깨버린 현실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 것인가.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완강하게

말보다 몇십배나 더 힘은 것이 실천이다. 그렇다면 미곡협동농장에서 원그루큰모재배방법을 도입하여 기상관념을 깨버린 현실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 것인가.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완강하게

말보다 몇십배나 더 힘은 것이 실천이다. 그렇다면 미곡협동농장에서 원그루큰모재배방법을 도입하여 기상관념을 깨버린 현실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 것인가.

말과 종자, 로력, 영농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다수확을 낼수 있다. 책은 말없는 스승이었다. 모두가 학습을 깊이한 결과 실리가 큰 선진과학기술인 큰모재배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정치·경제적 모순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었다.

평범한 연구사로 생각했던 그가 정서로써 인민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라는 것을 안 참가자들은 정신을 번쩍시키고 강의를 커를 제기하였다. 모든 농경자들이 제 몸뚱이를 바쳐서라도 5월에서 물은 쓰지 않게끔 많은 물을 절약한다. 큰모를 재배하면 앞으로 복비작물을 심을수 있고 또 자연적으로 나는 김을 같이하여 거름으로 리용하므로 살초제를 적게 쓰면서 도 지력을 높인다. 또한 논에서 병해충피해기간이 짧아지고 높은 온도에서 의한 비로습수들이 커져 그만큼 살초제와 화학비료를 적게 리용한다. 때문에 비를지를 개선하고 생태환경오염을 막는다. 큰모재배는 논에서 두벌농사지침이다. ...

결과 그들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큰모재배는 당의 농업정책인 물질약형농법, 유기농법, 두벌농사에 합리적인 영농방법, 큰 모 재배이다. ...

일꾼들은 이처럼 모든 조건을 성숙시킨 후 큰모재배도입문제 를 토의결정하였다.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완강하게

말보다 몇십배나 더 힘은 것이 실천이다. 그렇다면 미곡협동농장에서 원그루큰모재배방법을 도입하여 기상관념을 깨버린 현실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 것인가.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완강하게

말보다 몇십배나 더 힘은 것이 실천이다. 그렇다면 미곡협동농장에서 원그루큰모재배방법을 도입하여 기상관념을 깨버린 현실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 것인가.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완강하게

말보다 몇십배나 더 힘은 것이 실천이다. 그렇다면 미곡협동농장에서 원그루큰모재배방법을 도입하여 기상관념을 깨버린 현실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 것인가.

도 이 칠 란 드
조선의원 단 대표 단
여 러 곳 **참 관**

【평양 10월 24일 발의 사상리론업적을 깊이 조선중앙통신】하르투트 로트쿠위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이칠란드조선의원단대표단이 주재사상탑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영생불멸의 주재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

우리 사회의 영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민이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동사무소의 일꾼들이 찾아와 화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는 것을 알고 결혼상을 차려주고 여러가지 부엌세간들과 가정용품들, 식복물들과 생활필수품을까지 가져주며 애정을 축복해주셨습니까. 친어머니인 저보다 먼저 우리 성민이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친누이가 되어준 동사무장동지를 비롯한 동안의 일꾼들과 인민반장들의 정정에 저는 솟구치는 눈물을 곁길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영예군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일꾼들의 소행을 말로만 듣고 책에서나 보곤 하던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 건설자들, 발전소 완공에 기여한 련관단위 일꾼들, 근로자들

청년 중앙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발전소 완공에 기여한 련관단위 일꾼들, 근로자들이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태양을 따르는 청춘의 노래》를 관람하였다.

청년중앙위원은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정으로 마련된 즐겁고 의의있는 평양전야의 나날을 이어 가는 꽃잎은 행복속에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높이 평가하여 주신 경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의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고 있었다.

공연 무대에는 소합창 《김일성사피주의청년동명가》, 《인민의 환희》, 남성기타5명창 《우리 앞날 밝다》, 가부와 민족기악3중주 《우리 민족 제일일세》, 선동과 독연 《청년혁명가》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펼쳐졌다.

출연자들은 이 땅에서 청년사상, 청년중앙정치위원회의 빛나는 경표를 펼쳐서 청년들을 주체의 혁명을 뜻깊이 이어가는 혁명의 전위부대로 키워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찬미하는 우리 사회의 영원한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대동강구역 동문2동 18인민반 동 순옥



독자의 원지

저의 아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영예군인입니다.

조선로동당장년 70회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 참가한 경에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흥분어린 마음으로 받아안고서는 잠들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성에서 새기고 영예군인인 저의 아들을 위해 바친 동사무소일꾼들의 소행에 대해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제대되어왔을 때 조국을 위해 청춘시절을 보낸 아들이 몇몇하고 장하게 생각되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구자인 것으로 해서 어찌저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도이칠란트동아시아협회대표단 도착

리모 프레코프 상임리사를 단장으로 하는 도이칠란트동아시아협회대표단이 2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 후꾸오카현 일조우호협회대표단 귀국

나가무라 켄키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후꾸오카현 일조우호협회대표단이 24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 신사회당 대표단 귀국

오사나미 히로키리 중앙집행위원회 대표단이 24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주권과 존엄을 담보해주는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자주적용명제칙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이다. 선군이 있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이 있고 우리 겨레의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것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불록의 혁명투쟁에 의거하고있는 우리의 선군정치는 제국주의반동들의 온갖 첩대로부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의,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담보하는 원칙적이고 정의로운 반제국주의 정치이며 승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입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담보해주는 승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이다.
 애국애족은 위대한 우리 당이 펼쳐가는 정치의 근본이다. 당과 군대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있는것이고 혁명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하는것으로 굳은 애국애족이 구원원동으로 하여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로 위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다운 애국애족으로 되는것은 조국통일이다. 온 겨레의 세계적우익인 조국통일을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담보해주는 승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이다.
 애국애족은 위대한 우리 당이 펼쳐가는 정치의 근본이다. 당과 군대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있는것이고 혁명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하는것으로 굳은 애국애족이 구원원동으로 하여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로 위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다운 애국애족으로 되는것은 조국통일이다. 온 겨레의 세계적우익인 조국통일을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담보해주는 승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이다.
 애국애족은 위대한 우리 당이 펼쳐가는 정치의 근본이다. 당과 군대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있는것이고 혁명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하는것으로 굳은 애국애족이 구원원동으로 하여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로 위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다운 애국애족으로 되는것은 조국통일이다. 온 겨레의 세계적우익인 조국통일을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담보해주는 승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이다.
 애국애족은 위대한 우리 당이 펼쳐가는 정치의 근본이다. 당과 군대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있는것이고 혁명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하는것으로 굳은 애국애족이 구원원동으로 하여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로 위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다운 애국애족으로 되는것은 조국통일이다. 온 겨레의 세계적우익인 조국통일을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화과 협력을 가로막는 도발행위

외세와의 군사적공모결탁을 강화하는 남조선호전파들의 분분없는 망동이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과 같이 얼마전 남조선군부제거자들은 그 무슨 《관망식》항가의 구실밑에 미해방공포를 《로날드 레간》호를 부산앞바다에 끌어들이었다. 한편 서울에서 남조선인본군부당국자회담이라는 공문된 목적으로부터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적대서동을 생수들 들어 환영하고 그에 적극 공조해나서고있다. 남조선인본군부당국자회담에서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조선반도진입문제와 관련한 《3차협약》이 논의된것도 그것을 입증해 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파격외교에 대한 사리와 배상을 거부하며 반공화국고립압살정책에 미치지 않리라는 일본반동들의 군사적으로 서슴없이 걸타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백년수적정체 체질 밑에서 벌어지는 용납 못할 반공화국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이 거리의 지방과 시대의 요구에 배척되게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대결종에 배당되는것은 북남관계를 다시금 파국의 담터지로 차인지는 위험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북남사이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은 안중에도 없으며 그들의 골수에 있는 외세에 의거하여 우리와 한사도 대결할 용의가 없다는 것을 뚜여 보여 주고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정세의 안정적관리가 중요하다는데 대해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자를 계속 외면하며 외세와 공조하여 반공화국도발에 열을 올린다면 북남관계는 파국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운명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외세와의 군사적공모결탁을 강화하는 남조선호전파들의 분분없는 망동이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과 같이 얼마전 남조선군부제거자들은 그 무슨 《관망식》항가의 구실밑에 미해방공포를 《로날드 레간》호를 부산앞바다에 끌어들이었다. 한편 서울에서 남조선인본군부당국자회담이라는 공문된 목적으로부터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적대서동을 생수들 들어 환영하고 그에 적극 공조해나서고있다. 남조선인본군부당국자회담에서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조선반도진입문제와 관련한 《3차협약》이 논의된것도 그것을 입증해 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파격외교에 대한 사리와 배상을 거부하며 반공화국고립압살정책에 미치지 않리라는 일본반동들의 군사적으로 서슴없이 걸타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백년수적정체 체질 밑에서 벌어지는 용납 못할 반공화국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이 거리의 지방과 시대의 요구에 배척되게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대결종에 배당되는것은 북남관계를 다시금 파국의 담터지로 차인지는 위험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북남사이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은 안중에도 없으며 그들의 골수에 있는 외세에 의거하여 우리와 한사도 대결할 용의가 없다는 것을 뚜여 보여 주고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정세의 안정적관리가 중요하다는데 대해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자를 계속 외면하며 외세와 공조하여 반공화국도발에 열을 올린다면 북남관계는 파국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운명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외세와의 군사적공모결탁을 강화하는 남조선호전파들의 분분없는 망동이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과 같이 얼마전 남조선군부제거자들은 그 무슨 《관망식》항가의 구실밑에 미해방공포를 《로날드 레간》호를 부산앞바다에 끌어들이었다. 한편 서울에서 남조선인본군부당국자회담이라는 공문된 목적으로부터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적대서동을 생수들 들어 환영하고 그에 적극 공조해나서고있다. 남조선인본군부당국자회담에서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조선반도진입문제와 관련한 《3차협약》이 논의된것도 그것을 입증해 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파격외교에 대한 사리와 배상을 거부하며 반공화국고립압살정책에 미치지 않리라는 일본반동들의 군사적으로 서슴없이 걸타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백년수적정체 체질 밑에서 벌어지는 용납 못할 반공화국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이 거리의 지방과 시대의 요구에 배척되게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대결종에 배당되는것은 북남관계를 다시금 파국의 담터지로 차인지는 위험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북남사이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은 안중에도 없으며 그들의 골수에 있는 외세에 의거하여 우리와 한사도 대결할 용의가 없다는 것을 뚜여 보여 주고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정세의 안정적관리가 중요하다는데 대해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자를 계속 외면하며 외세와 공조하여 반공화국도발에 열을 올린다면 북남관계는 파국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운명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백승의 조선로동당》, 《인민을 이끌어 70년》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인디아와 세네갈신문, 방송들이 취재하였다.
 인디아신문 《인디안 엔드 월드 이벤트》 5일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진신문을 모시고 《백승의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두번째에 게재하였다.
 신문은 조선로동당이 김일성동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건당의 강령같은 통일 단계를 이룩하였으며 인민들의 참정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이라는 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신문은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사업적 업적을 빛나게 계속해나가는

인디아와 세네갈신문, 방송들 특집
 데 대하여 소개하고 인민들로부터 어머니당으로 불리우는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불패라고 강조하였다.
 이 나라 신문 《뉴레리 타임스》 9일부는 《인민의 나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조하는데 인민의 나라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사실자료들을 전하였다.
 신문은 인민대중계급주의사상인 주체사상을 사회주의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조선인아말로 인민의 모든 권리와 존엄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주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라고 썼다.

로조친선의 해 조선영화상영주간 개막
 로조친선의 해 조선영화상영주간 개막식이 21일 로씨야의 일류지은영화관에서 진행되었다.
 개막식에는 로변국제정탐당 영화제작조직위원회 위원장파 오스밀링영화평론을 비롯로 로씨야의 영화부분 인사들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직원들, 조선영화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로변국제정탐당 영화제작조직위원회 위원장파 오스밀링은 로조친선의 해에 모스크바에서 조선영화상영주간이 진행된다 하면서 다음

한 정신과 영웅적투쟁으로 타승하였을 로씨야인민은 영화들을 통하여 잘 알겠길이다.
 이번 조선영화상영주간은 조조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될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어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영화 《열미도들》을 감상하였다.
 로씨야의 학자들이 콜로멜라를 리용하여 물의 독성을 검사하는 새로운 방법을 내놓았다.
 콜로멜라는 깨끗한 물에서 사라지지만 물의 독성이 강할수록 생장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콜로멜라를 실험용물체에 넣고 그것의 생장속도를 추적하여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실험용물의 오염수치를 확정한다고 한다.
 물의 독성이 확인되는 경우 물에 대한 화학분석을 진행하여 오염원인을 밝혀낸다.
 현존방법으로는 4일이 걸려야 물의 독성을 확정할수 있지만 새로운 방법은 22시간안에 알아낼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크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공식분견으로 배포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공식분견 5/2015/799호로 배포되었다.

미해 항공포함고 남조선군부호전파들 대규모침략전쟁연습 감행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23일 미해침략군 행항공포함 《로날드 레간》호를 부산항역에서 남조선군부호전파들과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침략전쟁연습을 감행하였다.
 미해침략군과 남조선군부호전파들은 초기기와 직승기, 전 부모침략무기를 동원하여 대규모침략해상훈련에 돌입하며 전쟁화위대를 풍겼다.
 한편 해군특수전대가 대대로 훈련에 참가하고 해병대가 육, 해, 공군과의 협동에 우리의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나라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칠것을 호소
 라오스국가부주석이 최근 직접발언회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공업화, 현대화의 든든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을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능력있는 사람들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전체 인민이 단결하여 나라의 부강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재재취회의 서빙에 요구
 벨라루스외무장관 올라지미르 마체이가 18일 한때비총부총에서 열린 서빙에 대한 재재취회의 취회할것을 서빙에 요구하였다.
 그는 벨라루시에 대한 서빙의 제는 무의미하며 그것들은 아무런 목적도 달성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국방력강화힘찬 전명
 이란이슬람공화국지도자의 대외사업담당고문 알리 아크바르 벨라바티가 17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력강화에 계속 힘을 넣을 정부의 방침을 천명하였다.
 그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란의 조치들은 별갈들과의 협합의와 이루어진 판반도 없으며 그것을 구실로 군사력확장을 저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란정부는 나라의 방위에 필요한 무장장비들을 계속 개발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반레조에서 전과 확대
 수리아군과 민병대가 17일 라카키아시의 동북부지역에서

말하였다.
 제세를 시급히 철회하는것은 유럽동맹에도 리로울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로변국제정탐당 영화제작조직위원회 위원장파 오스밀링은 로조친선의 해에 모스크바에서 조선영화상영주간이 진행된다 하면서 다음

로변국제정탐당 영화제작조직위원회 위원장파 오스밀링은 로조친선의 해에 모스크바에서 조선영화상영주간이 진행된다 하면서 다음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비난

인도네시아정부가 12일 성명을 발표하여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만행을 비난하였다.
 11일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미국은 인권에 대해 입에 올릴 자격도 체면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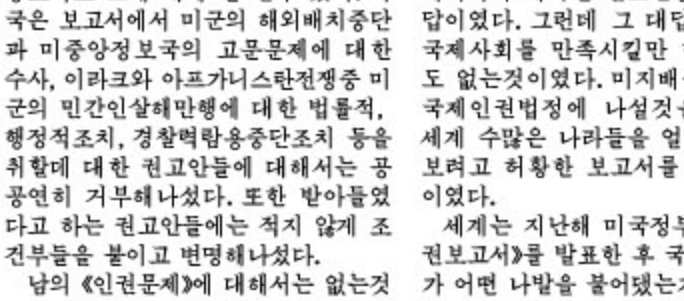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미국만큼 인권에 대해 떠드는 나라 없다. 제 정전에서 약 60년째는 미국이 세계가 규탄하는 저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달아보려고 비활하게 놀아내고 있다.
 이번 보고서발표는 미국이 마치못해 한것이었다.
 지난 5월에 열린 유엔인권리사회 산하 보편적인권상황검정기심의 실무그룹 회의의는 미국이 존제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상태에 대한 전면적인 심의를 위한것이었다.
 미국 대표단장은 심의 첫 공중인 보고상소개명에서 미국의 그 무슨 《인권협상을 위한 노력》에 대해 운운하며 앞으로 《인권의 보편적가치 구현을 위해 더 노력할것》이라느니 쾨니 하여 웅변더는 꾀만을 늘어놓았다. 이에 분노한 122개 나라와 지역의 대표들이 미국의 더러운 인권범죄를 폭로하며 연설들을 진행하였고 미국이 인권문제를 한시바며 해결할대 대한 권고안들을 제시하였다.
 미국이 이번에도 발표된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권고안들에 대한 대안없이, 그런데 그 대답이라는것이 국제사회를 만족시킬만한 한것은 하나도 없는것이었다. 미지배층은 미국이 국제인권법정에서 나설것을 요구하는 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열명렁명 넘겨보려고 허황한 보고서를 만들어낸것이었다.
 세계는 지난해 미국정부가 《네년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후 국주장관 케리 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없는것

독히 기억하고있다. 그는 덕은 나이에 어울리지 못할 들켜며 미국의 인권 리사회가 완전하고 할수 있는 현재 미국만큼 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나라 는 없다고 버꼈었다. 이것은 피재 절은 미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미국이 일으키고있는 인권소 통에 대한 황당한 비호두둔이고 미화 본식이다.
 미국은 인권에 대해 입에 올릴 자격도 체면도 없다.
 미국의 역사는 불과 수백년정도이다.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있는 나라에 대해서 그야말로 애송이에 불과하다.
 지구상에 생겨난지 얼마 되지 않은 미국이 북아메리카지역에서 팽창하고 기승을 부려온 뒤로 이렇듯 세계 곳곳에 군사적침입을 통해 세워놓았으며 미국달러 지배의 국제금융통화제도를 수립해놓은것은 결코 하늘이 쓴 행운도 아니고 인권분야에서 오만한 자의 의를 쌓은 덕택도 아니다. 바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피비린내 강도질을 하여 실현한것이었다.
 미국이 생겨나 발전해온 그 짧은 역사가 온통 피로 얼룩져있다. 인디언들을 대량살육한 피바다에 뿌리고 목욕한 피땀을 믿겨들므로 하여 온갖 인권의 골을 드러낸 미국은 오만한 자를 가진 나라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침략과 약탈전쟁을 벌였으므로 몸집을 비대하게 늘려갔다.
 미국형성시대 제 1차 세계대전까지의 130여년동안 114개의 대소침략전쟁과 8 900여만의 군사적간섭

미국에서 지난해 총기류범죄에 의한 사망자수 1만 2 560여명

미국에서 총기류범죄로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있다.
 최근 이 나라에서 발표된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만도 총기류범죄에 의한 사망자수가 1만 2 562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중풍에서의 세로공격에 의한 미국인사망자수와 비교

백지지에서 당국의 부당한 간섭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백지지에서 당국의 부당한 간섭정책을 반대하여 시위